

# 중소 유공자 92명 훈·포장... 금탑훈장에 이연배·이능구 대표

<오토젠>

<칠갑농산>

중기부·중기중앙회, 중기인대회 개최  
일자리·수출·사회공헌 성과 격려  
김민석 총리 “상생은 생존 전략”  
국민성장펀드·불공정 근절 의지

중소기업 발전에 힘쓴 유공자 92명(단체)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훈장·포장·표창을 각각 받았다. 기업인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금탑산업훈장은 오토젠 이연배 대표, 칠갑농산 이능구 대표가 수훈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선 '변화를 기회로,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중소기업인대회는 일자리, 수출, 사회공헌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계 최대 규모 행사로 올해가 37회째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광현 국제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기관장, 중소기업 협·단체장,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인 등 300여 명이 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민석 국무총리, 한성숙 중기부 장관 등이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리를 함께 했다.

김민석 총리는 “대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 지정학적 갈등은 상시화됐고 AI·에너지 대전환과 국내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면서도 힘차게 대응하려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국민이 성장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젠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문제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을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밸류체인을 구축해 대기업의 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매출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예의 금탑훈장을 받은 이연배 대표는 약 40년간 자동차 부품 산업에 종사하며 핵심 기술 국산화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충돌 안전과

연비 규제 대응을 위한 필수 기술인 ‘핫 스탬핑(Hot Stamping)’ 공법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해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차체 경량화 기술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매출 대비 5% 이상의 R&D 투자와 석사급 이상 인력 비율이 40%에 달하는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기술 기반 경영체제를 확립했으며, 국내 전기차 제조 기업에 경량화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주권을 확보했다.

또다른 금탑훈장 수훈자인 이능구 칠갑농산 대표는 쌀 가공식품의 현대화와 K-

푸드 세계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대표는 1990년 국내 최초로 쌀 가공식품의 보존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주정침지법’을 개발하고 해당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해 국내 쌀 가공산업의 대중화와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을 견인했다. 아울러 1996년 북미 시장 개척 이후 국제인증 취득 및 현지 유통 판로 개척을 통해 연평균 560억원 규모의 쌀 가공식품을 수출하며 K-푸드의 세계화를 주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성과 지역균형성장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제조업까지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제조업의 AI 전환은 이제 생존의 문제인 만큼 데이터 구축 지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중심의 협동형 AX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간 이전기업과 향토기업까지 지원 사각 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9세부터 90세까지... ‘모두의 창업’ 6만명 넘게 몰렸다

중기부, 최종 6만2994명 접수  
정부 창업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  
39세 이하 청년 신청자 68% 차지  
AI 키워드 아이디어 약 30% 달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자가 6만명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연소 신청자는 9세, 최연장 신청자는 90세로 세대를 넘어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접수 결과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6만2944명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들의 참여도 돋보였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39세 이하는 전체의 68%인 4만2798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신청자도 540명에 이르렀다.

지역의 창업 열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신청자 중 지역 신청자는 총 3만3628명(53.4%)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트랙별 지역 신청 비중은 일반·기술 트랙 50%, 로컬 트랙 69.4%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일반·기술 트랙에서 IT 분야가 1만4728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라이프스타일 1만1360명(21.9%), 교육 4077명(7.9%)이 뒤를 이었다. 로컬 트랙은 생활 분야가 7069명(64.1%)으로 가장 많았고, F&B 분야는

2992명(27.1%)으로 뒤를 이었다.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AI)의 확산 흐름도 확인됐다. 일반·기술 트랙 도전신청서 가운데 AI 키워드가 포함된 아이디어는 총 1만5339건으로 전체 아이디어 중 29.6%를 차지했다. 한 줄 아이디어 키워드 분석 결과에서도 일반·기술 트랙의 1위는 AI(1만1500건·42.2%)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접수된 6만여 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국 멘토기관의 검증을 거쳐 6월 중 5000명의 창업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창업인재에게는 AI 솔루션, 그래픽 처리장치(GPU), 규제 스크리닝(규

제사항 사전검토) 등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에서 청취했던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차 모두의 창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모두의 창업에 모인 6만2000개의 도전이 국가 창업시대의 열기를 직접 증명하고 있다”며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인공지능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규제사항 사전검토) 등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선정되지 못한 5만7000명의 도전자에게도 재도전 멘토링을 제공해 재도전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LG에너지솔루션 전기 이륜차 500대 투입 하노이서 교환실증 착수

LG에너지솔루션이 혼다, 베트남 하노이시와 손잡고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내연기관 오토바이 규제가 확대되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실증을 추진하며 동남아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공략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혼다, 하노이시와 ‘전기 이륜차용 공공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은 올해 3분기부터 하노이 주요 지역에 약 50개의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총 500대 규모의 전기 이륜차를 도입해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

/원관희 기자 wkh@

# 볼보 XC90, 안전·기술 앞세워 패밀리카 입지 굳힌다

올 1~4월 773대 판매, 전년비 98% ↑  
안전·편의사양 강화로 상품성 개선  
네이버 웨일·11.2인치 화면 탑재  
보증·OTA·5G 패키지 혜택 제공

볼보자동차코리아의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C90이 차별화된 안전성과 첨단 기술을 통해 패밀리카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의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IDA) 통계에 따르면 XC90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773대가 판매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391대) 대비 98%, 직전 같은 기간(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737대 대비 5%의 판매 성장을 기록한 수치다.

XC90의 인기 비결은 한층 개선된 차



볼보 XC90.

량의 상품성이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최첨단 안전 기술, 최고 수준의 편의 사양 등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 볼보자동차가 정의하는 진정한 스웨디시 럭셔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외관은 새로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프론트 범퍼 및 펜더, 보닛 등의 디테일의 변화를 주며 차세대 전기차와

기밀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브라이트 또는 다크 테마의 선택지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실내는 ‘스웨디시 리빙룸’ 콘셉트를 바탕으로 재활용 폴리에스터 텍스타일과 우드 데코, 향상된 엠비언트 라이트 등 고품질의 소재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결합해 최상의 안락함을 구현했다. 탁

월한 착좌감을 제공하는 최고급 나파레더 소재의 시트는 새로운 표준으로 제공되는 카다멈을 비롯해 차콜, 블론드 컬러의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볼보자동차의 차세대 사용자 경험인 ‘Volvo Car UX’와 ‘네이버 웨일’이 기본으로 탑재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OTT, SNS,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행 성능과 안락함 측면에서도 7인승 플래그십 SUV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마일드 하이브리드(B6)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T8) 파워트레인은 전동화 시대에 걸맞은 효율과 성능을 제공하며, 울트라 트림에 기본 적용된 에어 스펀션은 초당 500회씩 차량과 노면, 운전자 모니터링하는 액티브 새시와 결합해 탁월한 승차감과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선사한다.

/양성문 기자 ysw@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 인재 키운다 62기 V-Up 과정 개설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부설 연수원이 ‘제62기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V-Up) 과정’을 연다. 19일 VC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3일까지 각각 개최하는 V-Up 과정은 연수원의 대표 교육과정 중 하나다.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검증된 강사진을 통해 참가자들이 벤처투자 역량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수 기반의 인적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벤처캐피탈 및 유관 산업 종사자 간 폭넓은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